# 주간 증시 브리핑

2026.5.18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## 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코스피는 8천 선에 도달한 직후 급락세로 반전됨. 코스피는 3월말 이후 5/14일까지 한달 반 만에 +58% 상승했음, 그러나 삼성전자 협상 결렬과 금리 불안 여파로 급락(5/15일 -6.1%, 7,493p, 주간 -0.1%). 코스닥은 전쟁 전 수준마저 하회함(1,129p, 주간 -6.4%). 美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발언에 원달러는 다시 1,500원대로 올라섰음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최고치 경신을 지속했으나, 주 후반 금리 불안 (2년 4%, 10년 4.6%)이 부상되며 상승 폭을 반납함 (S&P500 +0.1%, 나스닥 -0.1%). 닛케이도 약세로 돌아섰음 (주간 -2.1%). 中 증시도 美中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다는 인식으로 하락함 (상해 -1.1%, 항셍 -1.6%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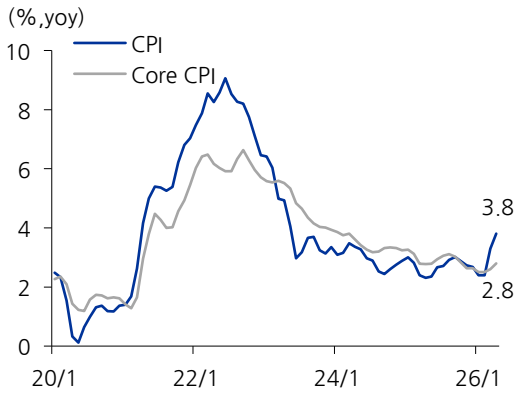
- **[시장전망]** 5월 일간 장중 코스피 등락율은 4월의 2%에서 4%로 확대됨. 코스피가 한달 반 만에 58% 올라 단기 과열 부담이 누적된 결과임. 기업이익 기대는 유효하나, 급등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. 단기 조정 국면을 예상함.

- **[주요일정]**
  ① 美 5월 S&P 제조업 PMI (5/21일)
  ② 美 5월 S&P 서비스업 PMI (5/21일)
  ③ 美 FOMC 회의록 공개 (5/21일)
  ④ 中 대출우대금리(1년/5년) 결정(5/20일)
  ⑤ 中 4월 소매판매 (5/18일)
  ⑥ 日 4월 소비자물가지수(5/22일)
  ⑦ 美 구글 I/O (5/19~20일)
  ⑧ 美 엔비디아, 월마트, 홈디포 실적 발표

| 구분 | | 5/15 | 1W | 1M |
|---|---|---|---|---|
| KOSPI | ↓ | 7,493 | -0.1% | 23.0% |
| S&P500 | ↑ | 7,409 | 0.1% | 5.5% |
| DOW | ↓ | 49,526 | -0.2% | 2.2% |
| 닛케이225 | ↓ | 61,409 | -2.1% | 5.6% |
| 상해종합 | ↓ | 4,135 | -1.1% | 2.7% |
| 원/달러(원) | ↑ | 1,500.8 | 2.0% | 1.8% |
| 엔/달러(엔) | ↑ | 158.6 | 1.2% | -0.1% |
| 국고채3년(%) | ↑ | 3.766 | 3.569 | 3.328 |
| 국고채10년(%) | ↑ | 4.217 | 3.909 | 3.655 |
| 미국채10년(%) | ↑ | 4.595 | 4.356 | 4.287 |
| WTI(달러/배럴) | ↑ | 105.4 | 10.5% | 15.5% |
| 한5-yr CDS(bp) | ↓ | 24.1 | -1.67 | -5.9 |

## CHART of the week

**美 소비자물가지수 추이**




### 1 美 4월 물가, 인플레이션 재점화 (5/12,13일)

**인플레 재확산 가능성, 정책 불확실성 확대**

- 美 4월 CPI는 +0.6%mom(+3.8%) 상승하며 전월(+3.3%)과 시장 예상(+3.7%)을 모두 상회함.
-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전월비 +3.8% 상승하며 상승분의 40% 이상을 차지. 주거비는 +0.6% 상승. 서비스 물가의 재상승 우려가 커짐.
- 4월 PPI는 +1.4%mom(+6%yoy) 상승하며 예상(+0.5%)을 크게 상회. 상승률로는 22/3월 러우 전쟁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. 서비스 가격이 +1.2%mom 상승해, 에너지 가격을 넘어 운송·유통·물류 전반으로 비용 압력이 확산됨.
-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 임금 상승률은 (-)로 반전됨.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임.

### 2 美-中 정상회담(5/14~15일)

**전략적 경쟁은 지속, 경제 충돌은 억제**

- 美 트럼프 대통령과 中 시진핑 주석은 6개월만에 美-中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, 안보 및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함.
- 美은 中 기업 10곳에 엔비디아 AI 가속기 H200 판매를 승인. 中은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함. (2017년 이후 재개).
- 안보 측면의 갈등은 지속.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함.
-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보유 반대라는 원칙을 재확인함.
- 이란 문제를 두고, 양국은 경제적 충돌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나타난 것임. 관리된 경쟁 구도 하에 공급망 재편과 AI 패권 경쟁은 지속.

### 3 韓 삼성전자 노조협상 결렬(5/13일)

**AI 경제 전환에서 새로운 분배 요구는 커질 듯**

-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됨.
- 노조는 영업이익 15%와 성과급 상한 폐지를 고수함.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함.
- 단순 임금 인상보다 '성과 배분 구조'가 핵심임. 이에 청와대 정책실장은 "AI 국민배당금"을 언급하며 쟁점이 더욱 부각됨.
- 노조는 5/21일 총파업(18일간) 가능성을 시사. 생산 중단 시 직·간접적 피해 규모는 수십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-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남아있으나, 다른 기업 노조의 추가적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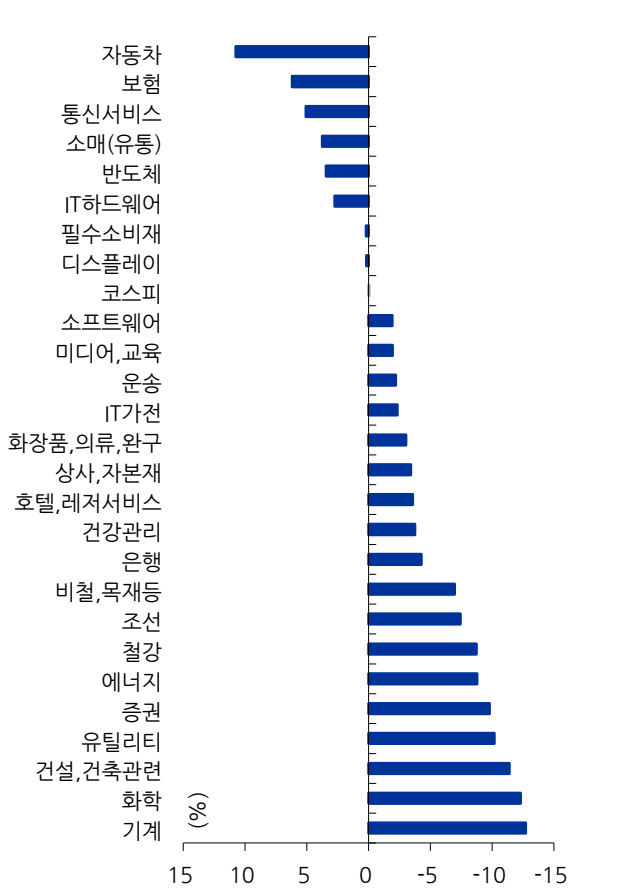
### 4 韓 채권시장 동향(5/11~15일)

**글로벌 채권 불안, 국내 인상 우려로 대폭 약세**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766%(+19.7bp), 10년물 금리 4.217%(+30.8bp)마감.
- 美 근원 CPI 결과(0.4%mom, 2.8%yoy)에 인플레 우려가 높아짐. 英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재정 우려도 재부각됨. 日 BOJ 위원의 금리 인상 발언도 글로벌 채권금리 급등을 견인.
-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을 언급한 것도 부담. 원/달러 환율 1,500원 돌파하며 국내 인상이 당겨질 수 있다는 불안도 금리 상승을 더함.

# 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## 주간 업종별 수익률(5/15 기준)




## 주요 경제지표 예상(5/18 ~ 5/22)

### 美 5월 글로벌 제조업 PMI(5/21일) → 세부 항목에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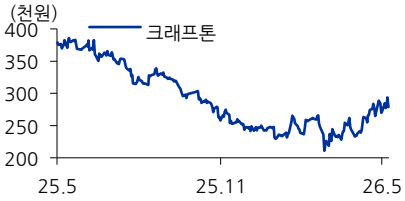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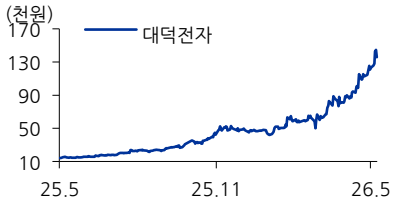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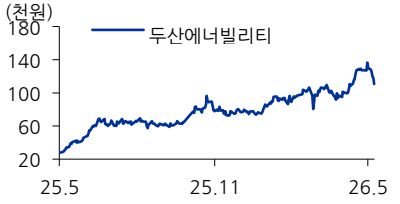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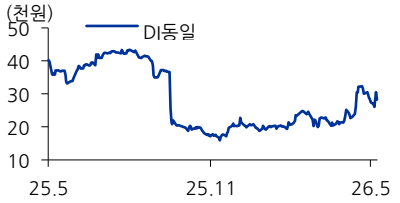
- 美 5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는 공급망 압력과 재고 비축 수요 영향으로 확장 기준인 50pt를 상회할 전망. 다만 세부 지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
- 美 4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는 생산과 신규주문이 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54.5pt로 전월 대비 2.2pt 급등함
- 생산과 수주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-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에 대비한 방어적 재고 비축 수요에 기인함
- 양국의 전쟁 출구 전략 부재 속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은 5월 초 이후 하락 중. 따라서 PMI 헤드라인에 상승 압력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- 신규 주문 감소 여부와 투입가격 증가세 둔화 여부 등 세부 항목을 통해 실질 수요 개선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

### 美 4월 FOMC회의록 공개(5/21일) → 정책 기조 변화 여부

- 美 연준은 4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.5~3.75%로 동결함
- 4월 회의록에서는 물가 재상승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경계 수준과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의 후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
-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위원들은 물가둔화의 진전이 멈췄다고 평가함
- 4월 회의록에서는 이런 우려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, 추가 긴축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여부가 주된 관심사임
- 결국 FOMC 회의록은 물가 상승이 '일시적 충격'인지 '구조적 재상승 위험'인지 가늠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

| | 주요경제지표발표 | 매크로/시장 이벤트 |
|---|---|---|
| 5/18 (월) | ▪ 中 4월 소매판매 (C: +1.9%yoy, P: +1.7%yoy)<br>▪ 中 4월 산업생산 (C: +6.0%yoy, P: +5.7%yoy) | ▪ [실적발표] 中 바이두 |
| 5/19 (화) | ▪ 유 3월 무역수지 (P: +7.0B)<br>▪ 日 1분기 GDP (C: +0.4%qoq, P: +0.3%qoq) | ▪ 美 구글 I/O 2026(~20일)<br>▪ [실적발표] 美 홈디포 |
| 5/20 (수) | ▪ **유 4월 소비자물가지수[F]** (P: +3.0%yoy)<br>▪ 유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[F] (P: +2.2%yoy) | ▪ 中 LPR 금리(1년/5년) 결정<br>▪ [실적발표] 美 엔비디아, TJX, 타겟, 아날로그디바이스 |
| 5/21 (목) | ▪ **美 5월 S&P 제조업 PMI** (P: 54.5)<br>▪ **美 5월 S&P 서비스업 PMI** (P: 51.0)<br>▪ 유 5월 S&P 제조업 PMI (P: 52.2)<br>▪ 유 5월 S&P 서비스업 PMI (P: 47.6)<br>▪ 韓 5월 1-20일 수출 (P: +17.7%yoy) | ▪ 美 FOMC 회의록 발표<br>▪ [실적발표] 美 월마트, 디어 中 니오 |
| 5/22 (금) | ▪ **日 4월 소비자물가지수** (C: +1.7%yoy, P: +1.5%yoy)<br>▪ 日 4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(P: +1.8%yoy)<br>▪ 韓 5월 소비자심리지수 (P: 99.2pt) | ▪ 韓 국민성장펀드 출시 |

# 추천 종목

| 섹터/산업 | 종목/코드 | 편입가 (원)<br>편입 날짜 | 수익률 | 최근 1년간 차트 | 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 | 투자 포인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자동차 | 현대차<br>(005380) | -<br>(5월 18일) | 신규 편입 |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175,231.2 / 187,819.3 / 194,408.0<br>영업이익 14,239.6 / 12,444.3 / 12,098.1<br>순이익 13,229.9 / 11,676.0 / 11,387.8<br>PER (배) 4.6 / 17.6 / 18.0 | ▪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 티저 공개, 하반기 RMAC 테스트 센터 개소<br>▪ 테슬라의 옵티머스 7월 양산 개시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시장의 관심 집중될 것 |
| 게임 | 크래프톤<br>(035720) | -<br>(5월 18일) | 신규 편입 | 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2,709.8 / 3,315.8 / 4,735.3<br>영업이익 1,182.5 / 1,175.2 / 1,424.5<br>순이익 1,302.6 / 882.0 / 1,212.7<br>PER (배) 11.5 / 15.9 / 11.6 | ▪ 4월 스텔라 블레이드 콜라보, 연내 추가 모드 확대 등으로 트래프 반등 추세 지속 가능. 신작 서브노티카2 얼리액세스 출시 12시간 만에 200만장 돌파, 신작 효과도 기대<br>▪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, PUBG의 콘텐츠 플랫폼화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 연장, 신작 모멘텀, 적극적 주주환원에도 불구하고 연초대비 주가 반등 폭은 그리 크지 않음 |
| IT/전기전자 | 대덕전자<br>(353200) | 114,400<br>(5월 4일) | +18.7% | 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892.1 / 1,049.6 / 1,510.6<br>영업이익 11.3 / 47.0 / 233.4<br>순이익 23.8 / 45.6 / 193.9<br>PER (배) 33.6 / 163.0 / 38.4 | ▪ 하반기 서버급 대면적 FC-BGA 기판, 내년 2분기 Ai5 등 신제품 모멘텀 전까지 컨트롤러 제품이 가동률 개선 견인 전망<br>▪ 1) MLB 내 SpaceX향 항공우주 MLB 물량의 증가, 2) MLB 내 AMD Helios향 출하 증가, 3) 메모리 PKG 증설(컨센 미반영)으로 인해 27년 OP 상향 기대 |
| 에너지/인프라 | 두산에너빌리티<br>(034020) | 111,000<br>(4월 20일) | -0.2% | 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16,233.1 / 16,968.5 / 18,092.6<br>영업이익 1,017.6 / 887.8 / 1,128.0<br>순이익 394.7 / 373.7 / 498.0<br>PER (배) 101.0 / 424.8 / 249.5 | ▪ '26년부터 글로벌 대형원전 발주 본격화될 전망, SMR 파운드리로써 '28년 캐파 20기 달성하며 지속 성장 전망<br>▪ GEV, 지멘스, 미쓰비시 가스터빈 수주잔고가 5년 이상 적체되어 동사 수혜 기대. '27년 이후 서비스 매출 비중 확대로 믹스 개선 효과까지 이어질 전망 |
| 그린산업/ESG | DI동일<br>(001530) | 21,400<br>(4월 6일) | +32.0% |  | (단위: 십억원, 배)<br>24년 / 25년 / 26년<br>매출액 651.7 / 608.9 / 699.2<br>영업이익 7.8 / -1.0 / 12.0<br>순이익 2.5 / -9.7 / 11.5<br>PER (배) 766.3 / - / 54.6 | ▪ 알루미늄박 생산라인은 내년 4분기 추가 3개 라인 완공 예정. 대부분 LFP 배터리용 코팅박으로 생산될 것으로 추정<br>▪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향후 동사의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규모 |